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어판 gpnewsjp.org

중어판 gpnews.cn.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3. 24 ~ 2024. 4. 13 제297호

생명의 소중함 증명하는 약한 자... '낙태 합당한 태아는 없다'

2020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3만 2000건의 낙태가 발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2019년부터 5년 연속 낙태가 세계 주요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어떤 아이도 낙태될 이유가 없다.'고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홍순철 교수(고대 산부인과)는 지난 9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성산 콜로키움의 '어떤 태아가 인공임신 중절의 대상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임신중절에 적합하거나 합당한 태아는 단연코 "없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날 팔다리 없이 태어나 오히려 멀쩡해 보이는 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의 삶이나, 보통 태어난 지 수일 내 사망하는 무뇌아를 출생한 한 가족이 수십주간의 극적인 가족여행을 통해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사례를 소개하며 정상 분만이 한 생명과 산모 및 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산전 검사에서 태아 기형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통해 낙태를 선택하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닉 부이치치는 비록 심한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것을 보며 무엇이 진짜 장애인이라는 질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태중 무뇌아였던 세인 마이클 헤일리의 부모는 의학적으로 태어나 수일 내 사망하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대신 세 가족이 함께할 버킷 리스트를 작성, 39주간의 여정을 함께 했다. 이 가족의 축복 속에 태어난 세인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뉴스 황금 시간대에 방영돼,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던져주었다.

홍 교수는 태아와 별도로 임신부의 입장만 고려한다고 해도 낙태보다는 출산하는 것이 산모의 육체적 건강에 유익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하다고 낙태보다

성숙하게 출산 후 이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낙태를 원하고 찾아오는 산모를 진찰할 때 홍 교수는 태아 초음파를 부모에게 보여준다면, 초음파 속 실제 아기의 모습을 본 부모들은 '낙태를 하지 말라.'고 직접 권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태아를 보며 낙태의 마음을 접는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한 낙태가 많이 이뤄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임신부가 금기 약물로 정해진 약을 복용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태아 발생학과 약물의 대사 기전을 알면 불필요한 두려움 때문에 아기를 잃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논문을 통해 약물을 복용한 경우(2.5%)와 노출이 안 된 경우(2.9%)의 기형률을 비교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장애밀 선교사 (K국)

하나님과 함께 K국 유치원에서 쓰레기마을까지

에밀의 어머니는 고아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키우시겠다고 아들을 고아로 등록해 키우셨다. 매우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잘 못먹고 살았던 덕에

그리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갔다. 러시아어 한마디 모른 채 한글로 발음을 적어가며 시작한 찬양 사역, 후원자 하나 없던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를 세

우며 K국에 교회가 회복되는 소망에 사로잡혀 달려오기까지. 장애밀 선교사를 이끌어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0)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자손'은 누구인가

첫 사람 아담의 죄는 그의 모든 자손, 곧 인류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이 장면은 앞으로의 모든 인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했으나, 이 순간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

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14-15, KSV)

이 말씀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단순히 여자와 뱀이 서로 혐오감을 가진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님은 장차 사람을 사탄으로부터 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여자에게서 한 자손이 태어날 텐데, 그 여자의 자손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또 사탄도 그를 해칠 것이나, 그는 단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 곧 죄인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다. 여자의 자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릴 것이라고 하셨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 사람이나 물건을 택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던 옛 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선택된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별한 임무란 인류를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언약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담과 하와는



일러스트=시제작, DALL-E

이 약속에 더할 수 없이 기뻐했을 것이다.

이 구원자의 약속은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이' 혹은 '구세주'라는 이름이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

이며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야, 내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이사야 45:21-22, AEB)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부르키나파소 교회, 박해 중에 말씀으로 위로받아



▲ 부르키나파소에서 성경을 들고 있는 어린이. 제공: WMM

부르키나파소의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만난 한 어린이가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다. 이 어린이를 주와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지금 부르키나파소 교회는 박해 받고 있는 중이다. 부르키나파소는 1896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처음 기독교가 전파됐다.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기독교인(21%, 개신교 8·가톨릭 11)과 무슬림(55%), 원시 부족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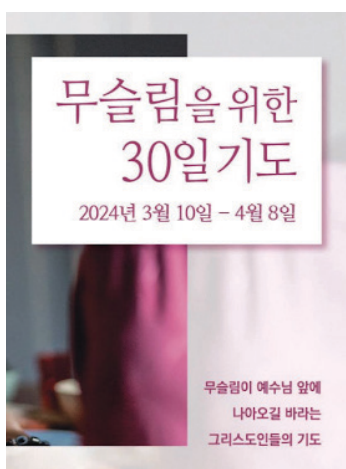
이슬람 무장세력 알카에다와 아이시스(ISIS·이슬람국가) 등과 연계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준동으로 지금까지 약 2만 명이 숨지고 23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2019년 4월, 70명가량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하고 교회 5곳이 공격을 받은 이후, 기독교인들은 지하디스트들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됐다. 1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다. 부르키나파소 북부와 동부에서는 치안 문제와 공격 위협으로 2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해 부르키나파소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달했다. 성도들은 성경에 마음을 열고 희망을 찾고 있으며,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살후 1:4) [GPNEWS]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전개... 32년째 이어져

1992년 중동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32년째 무슬림들의 금식월인 라마단 기간에 맞춰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무슬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번 기도운동은 30일기도운동네트워크, GAP무브먼트,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이슬람연구원 등이 기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도연합체인을 운영하는 기도24·365본부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매일 관련 기도정보와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30일기도운동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1992년 중동에서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를 하다가 시작됐다. 당시 그들은 가능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했는데, 때마침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이었다. 라마단은 매년 30일간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의무다. 이 기도

운동은 무슬림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운동으로 시작됐다. 현재 30일 기도운동 책자는 30개 언어로 번역돼 40개국에 배포되고 있다. 라마단 기간 매일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가장 큰 기도 행사가 되고 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슬림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일기도운동네트워크 대표 이현수 선교사는 “이슬람 세계는 14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흑암의 땅이었고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한 주의 제자들도 많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30년 전 주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무슬림이 복음의 빛을 보고, 듣고 반응하게 됐다.”며 “이슬람 세계에 부는 영적 바람이라는 책을 집필한 데이빗 게리슨은 1400년을



▲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 출처: 30일기도운동네트워크

통틀어 지난 20년 동안 더 많은 무슬림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30일기도운동네트워크는 2028년까지 무슬림의 10%가 주님께 돌아올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10/10 기도운동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 이슬람파트너십과 같은 단체들과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프랑스, 조력 사망 법안 추진... 불치병 환자 직접 투약 허용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문의 동의하에 불치병 환자가 약물을 직접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조력 사망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AFP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지난 11일 전했다. 이 법안은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 땅의 위정자를 꾸짖어 주소서. 불치병으로 삶의 의미를 잃고 죽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게 하소서.

아이티, 갱단 폭동 속 기독교 단체 등 수십 명 고립

아이티가 갱단 폭동으로 무법천지가 되면서 기독교 단체 등 수십 명이 사실상 고립된 상태라고 지난 8일 AP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이티에 선교나 입양, 구호 활동을 위해 머물고 있던 이들은 아이티의 치안이 완전히 마비된 가운데 공항과 항구까지 폐쇄되면서 호텔이나 집에 발이 묶인 신세가 됐다. 기독교 자선단체 미셔너리 플라이트 인터내셔널(MFI)의 로저 샌즈 부사장은 “비행기가 공항에 접근하면 이를 총리의 비행기로 오해한 반정부시위대가 공격을 해올 수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혼란 가운데 아이티를 섬기는 선교사들과 기독교 단체를 지켜주사 흑암 중에 두려워 떠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안전하게 구조되게 하소서.

韓 전국 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차별금지법 폐기 촉구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오범열, 김종우 목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차별금지법안(차금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 8일 연석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에 차금법안 폐기를 비롯해 생명존중 입법 요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땅의 가정과 교회,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고 폐기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취하여 기도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GPNEWS]

기도24·365

YouTube
기도24365

오늘의 기도방송

3월 4일~29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아침 6시~7시 “생방송”

2차 **느헤미야52일 프로젝트**

4월 1일 ~ 5월 30일

참여대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기간 2024년 4월 1일 ~ 5월 30일 중 24시간 단위로 하루를 정합니다.(단, 주일은 제외)

기도방법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 중 하루에 한 권을 선택하신 후, 정하신 날짜에 하루 24시간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장소선정 이 기도에 함께 연합할 분들을 동원하여 가정이나 교회,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10-9440-4365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기도24·365 홈페이지(prayer24365.org)에서 확인하세요.



극동방송, ‘차별금지법 비판 방송 2심 패소’ 상고하기로… “종교자유 침해, 원심 파기해야”

방통위 제제는 방송내용 개입 자제하며 규제 축소하는 시대정신에도 역행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종교방송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경적 근거로 비판한 내용이 방송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올 2월 말 2심 재판에서 종교방송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극동방송은 종교방송을 하는 민영 라디오방송사로 기독교인들의 헌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종교적 입장에서 진단하려는 취지의 방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상고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건의 발단=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9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간에 ‘특별좌담회 포괄적차별금지법 긴급진단’이라는 제목의 대담프로그램을 통해 조영길 변호사, 육진경 전국교회회복교사연합 대표, 김영길 바른군 인권연구소 대표 등 기독교 전문가들이 발언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반복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행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면 특혜를 받게 되고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설교를 방송한 방송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적 판결=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해 11월 9일 출연

자들이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하며 법안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의 공정성(9조), 객관성(14조)을 위반했다며 방송법 100조에 따라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극동방송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관련해 출연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전달했으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매체의 독점이나 공정성 요구가 사라지는 추세에 이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출연자 및 청취자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극동방송은 주장하며 소

의견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주의 조치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 주편성(종교목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부편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이는 방송 내용이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받는 방송 영역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주장은 법적 제재의 근거로 활용된 동일한 심의규정의 또 다른 조항인 방송의 공적책임(7조), 공정성(9조), 윤리성(25조), 신앙의 자유 존중(32조) 조항을 무시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심의규정 7조는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심의규정 9조 5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



▲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FEBC 홈페이지 캡처

프로그램을 송출해왔다.

극동방송 사시, “복음 전파로 모든 사람의 영적 구원”

또한 극동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북방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내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입법 취지와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성경적 근거에서도 조망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36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의 가족관계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통해 허용될 수 있는 동성혼 등은 위헌적 개념이다.

따라서 법원이 해당 방송 내용이 대담 프로그램으로서 반론을 포함하지 않아 객관성,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시한 것은 종교방송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촉구할 터”

극동방송의 대응= 극동방송은 이러한 논리로 자사의 방송이 공정성을 이유로 종교방송의 교리 및 선교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고 강제하게 하는 것은 종교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상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며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동방송은 3월 중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종교방송의 자유를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건의 경과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극동방송의 한 관계자는 “방송 선교를 위해 설립된 극동방송은 사실상 모든 내용이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제작, 방송되고 있다.”며 “이 같은 종교방송을 일반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심의한다는 것은 종교방송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GPNWS]



▲ 극동방송을 지지하는 서명에 26만여 명이 동참했다. 출처: 유튜브 채널 복음한국TV 캡처

송을 제기했으나, 앞서와 같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객관성, 공정성 문제 삼은 방송통신심위, 방송의 공적책임과 윤리성 등은?

판결의 문제점= 법원은 극동방송이 종교방송이라 할지라도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슈에 관해 편견이나 불균형한 관점을 갖지 않도록 반대

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종교방송이 종교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어 심의규정 25조는 1항에서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동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2항에서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방송의 윤리성을 밝히고 있다. 32조는 타종교에 관한 조항이긴 하지만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동방송은 1956년 북방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종교방송을 통해 한국어를 비롯 5개국어로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해왔으며, 사실상 모든 교양 프로그램도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복음을 전파, 모든 사람의 영적 구원과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사시(社是)를 제시하고 있다. 비전선언문에서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대상황의 변화와 정조를 직시하고 복음으로 모든 해법을 제시하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 비전을 성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종교방송으로서 극동방송은 찬양과 설교 등 예배 중계만이 아니라 과학·정치·경제 등 공적 영역 역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방송으로 존재해왔음을 명백하게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리가 동성애를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가족법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와해하고 사회윤리를 어지



▲ 지난 2020년 CTS와 극동방송에 대한 방심위 소위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 현장. 출처: 유튜브 채널 복음한국TV 캡처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제자를 세우는 장애밀 선교사 (K국)

• 1면에 이어

- 예수님을 믿게 되신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어릴적 이야기로 시작해야겠네요. 어머니(장성철 목사)께서 평생 고아원을 섬기셨어요. 덕분에 형과 저도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부산이 고향인데, 제 기억에 참 고아원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실 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고아를 섬겨야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런 비전을 가진 어머니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말씀도 읽어주시고 찬송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고아원마다 개혁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고아들은 이와 피부병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를 엄청 많이 옮겨서 늘 참빛으로 머리를 빗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이유 중 하나가 옷이에요. 고아원은 피복실이라는 곳에 옷을 보관해요. 그 방에는 100명

룩해서 키우셨어요. 어머니 사랑도 빼앗긴 거 같은데, 고아들은 ‘너는 엄마가 있다.’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때리고 고문도 했죠. 제 얼굴은 늘 찌그러져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늘 피해 있던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가 나의 피난처였죠.”

-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셨군요.

“신앙이 좋아서 매일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단지 피할 데가 없어서 간 거였어요. 고아원 형들과는 다르게 목사님이 잘해주시니까 ‘나중에 나도 목사돼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운동을 할 기회를 얻어 육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교생 건강검진에서 입원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로 허약했어요. 빈혈도 있고 늘 시무룩하니까 관계도 좋지 못했어요. 늘 우울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다 5학년

운동만 한다고 공부도 안했고, 몸은 다쳤으니 고등학교 갈 자격도 안됐어요.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중3 무렵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다

- 어린 나이인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군요.

“그때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중3을 한 번 더 다니면서 공부하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렇게 중3을 한 번 더 다니기로 하고, 복학하기 전에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8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하신 것이 믿어지면서 많이 울었어요. 헌금함이 지나가는데 은혜를 받아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10원 한 푼 없었죠. 헌금함을 보면서 평평 울고 있다가 팔목에 만화시계가 생각났어요. 이걸 드리면 되겠다 해서 풀어가지고 기도원 원장님께 찾아갔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이거 누구 줍주세요.’ 원장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돌아가서 기도하라고, 드릴 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 드릴만한 걸 찾으셨나요?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 나에게 줄 게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8일간 금식해서 힘들었는데 춤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기뻐요. 그때 ‘하나님, 새벽기도 나가게 해주세요. 하루에 5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 매일 하게 해주세요.’라고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 하나님을 만난 이후 삶에 변화가 나타났을 것 같네요.

“어머니와 함께 중3 복학할 때가



제공: 장애밀 선교사

지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5명을 꼭 전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았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어릴 때니까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잠만 오고요. 어느 때는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기도가 되더군요. 이후에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셔서 불교권,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선교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받으신 거군요.

“중3 복학을 했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1년 안에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다 놀라셨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전도도 많이 하다가 고3 때 교회 전도사님이 K국으로 가게 되셨어요. 전도사님은 고신대 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가서 체육관에서 집회를 했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수백 명이 일어났죠. 그 집회에서 전도사님이 찬양인도를 했어요. K국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앞으로 이곳에서 찬양 사역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모두 대학생들이고 하니까 갈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제게 K국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보겠다고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더군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1993년 2월 27일에 K국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21살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K국 선교사로

-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가장 처음 오신 전도사님 사역을 도왔어요. 열심히

찬양사역하고 전도팀을 이끌었어요. 이곳에 올 때, 노한사전 한 권만 들고 왔죠. 언어를 잘 못하니까 악보 밑에다 한글로 발음을 적어서 찬양을 익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젊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후 국립대학교 언어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 21살에 선교지에 홀로 나와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는 고신대 전도단 파송을 받고 왔는데, 당시에는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후원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먹고 살게 막막했죠. 저를 소개해준 전도사님 교회에서 매월 헌금해 주는 20만 원이 전부였어요. 초기 9년 동안 2001년까지 후원자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전도할 때, 가난할 때도 부요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물론 어릴적 고아원에서 살았던 경험 덕분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기도 했어요. 고아원 밥과 이곳 밥이 똑같거든요. 수저를 대면 무너지는 밥. 늘 먹던 밥과 똑같아서 저는 잘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못드시더군요.”

-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K국 영혼들을 섬긴 이야기 나눠주세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K국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밖에서 전도하면 잡혀가고 추방되지만, 초기에는 이슬람 세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밖에서 찬양도 하고 무언극도 하면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국영백화점과 공원이 전도 장소였어요. 물론 시골 지역으로 가면 무슬림들이 돌을 던졌어요. 시장에서 찬양하고 울동하면 수박껍질도 날라왔어요. 어쩔 수 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한 집에 노크를 했는데, 문이 열리니 제게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듯이 이끌려서 들어가보니 한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당신을 꿈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꿈에서 당신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했어요.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도 했죠. 그때는 전도 나갔던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K국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이후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GP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기도회를 인도하는 장애밀 선교사. © 복음기도신문

넘는 아이들의 옷이 있죠. 그때는 손으로 옷을 빨아야 했으니까, 보모들이 130~140명 아이들의 옷을 다 못빨고 그냥 피복실에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피복실 안이 엉망이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가는 고아원마다 피복실을 열고 모든 옷을 꺼내서 다 손빨래를 하셨어요. 한 달 넘게 빨래만 하셨어요. 우리도 옷을 고무통에 넣고 발로 밟아서 빨래를 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끄끙 앓으셨죠. 당시에는 고아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피부과에 가서 의사하고 이야기하면서 빌었죠. ‘우리 아이들 도와주세요.’ 내가 보기에 안쓰러울 만큼 짝씩 빌면서 약을 받아오셨어요. 애들 몸에 뿌리면서 치료하셨죠. 가는 곳마다 그런 개혁을 하셨어요.”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던 유년시절

-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셨네요. 선교사님은 고아원의 삶이 어떠셨어요?

“나는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고아들과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준다면 저도 고아로 등

때 제가 달리는 것을 본 육상 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가장 좋은 건 고아원에 빨리 안가도 되는 것이었어요. 또 감독님이 칭찬도 해주시니 너무 좋았어요. 1년 만에 운동 실력이 늘었어요. 장거리 선수였는데 6학년 때 부산 88 꿈나무를 뽑는 시험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이제 꿈나무로 뽑혀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고아원에서는 잘 못먹었는데, 훈련을 받으니 고기도 주고 먹을 게 풍성했어요. 죽자사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은 훈련이 힘들어서 다들 집에 가고 저만 남았어요. ‘나는 유망주다.’라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 이제 운동을 계속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중3 무렵 다리에 이상이 왔어요. 관절이 자라는 어릴 때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 관절이 어긋난대요. 그때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김스를 하고 좀 쉬다가 나아지면 운동을 했어요. 나중에는 병원에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고아원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싫었죠.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동안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장애밀 선교사



스리랑카 복음캠프, 새로운 피조물의 회개와 고백

스리랑카 타밀 지역에서 지난 2월 5~9일까지 복음캠프가 진행됐다. 이번 복음캠프 약속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이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캠프에 앞서 한국 섬김이들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질문이 생겼다. 어떻게 노래하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슌 3:15) ‘십자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고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으며 다시는 두려움이 없으리라!’ 선포해주셨다.



▲ 스리랑카 복음캠프 현장. 제공: 최영 선교사

5일 아침, 복음캠프의 문이 열렸다. 참석한 모두가 복음의 영광 보기를 소망했다. 강의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 앞에 대부분의 훈련생들과 섬김이들이 진지하게 반응했다.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될 때 십자가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

셨던 아름다운 원형의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캠프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시바쿠마르라는 형제님이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그분이 평소 드시던 약을 사서 드렸다. 그런데 평소 먹던 용량과 차이가 났던 것인지, 입 주위와 머릿속이 부어오르고,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육체와 마

음을 붙드셔서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의 영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도동역자들도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주셨다. 시바쿠마르 형제님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감사하게도 형제님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점점 얼굴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문제없이 참여했다. 할렐루야! 시바쿠마르 형제님은 자기에게 실재가 된 복음을 나누는 시간에 가장 먼저 나와서 정직하게 나눠 주었다. 복음 앞에 서서 죄인 된 자신을 직면하고 새 생명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 된 실존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실재가 된 ‘나의 복음’을 나누었다. 훈련생들은 눈물로 나의 복음을 고백했다. “저는 내전 때에 여러 사

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저는 낙태를 행한 살인자입니다.” “저는 아내를 폭행한 나쁜 남편입니다.” “저는 동생을 자살로 몰아간 나쁜 누나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존재적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나의 복음을 모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감격이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영원하고 절대적, 근본적인 기쁜 소식이었다. 주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GPNEWS] 최영 선교사 (순회선교단 서아시아지부)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친동성애 목사의 출교가 의미하는 것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오던 이동환 씨의 출교가 확정됐다. 이 씨는 2019년 퀴어행사 축복식 인도를 비롯한 행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범과의 종류)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의해 기소돼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에도 퀴어행사에 참석해 열지비티(LGBT) 성 정체성 보유자 집례식을 하고,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퀴어행사에서의 동성애 축복식을 재현하고, LGBT 단체를 설립해 퀴어행사에 참가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이를 본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선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정직 기간 중에 담임 또는 목사로서 반성 없이 같은 범과를 저질러 처벌을 원한다.”며 이 씨를 추가 고발했다. 이 씨가 “권력 집단인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징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 감리교는 친동성애 세력의 증가로 인해서 교단이 분리되고 있는 중이다. 장로교는 이미 넘어갔다. 두 교단의 과거 동

성애에 대한 온정적 불충분한 대처를 보면 한 세대만에 교단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이동환 씨의 출교 지연도 위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퀴어 신학은 동성애자가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퀴어 신학은 남미 해방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방 신학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독교에 적용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본가를 전복하고, 피억압자가 억압자를 전복하여 체제를 뒤바꾸듯, 교회에서 정죄되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제 통한 게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것을 학교에 적용한 것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다. 미국 장로교의 데이비드 신티목사는 1970년대 초반에 동성애자라고 밝힌 이후 친동성애 행보를 보였다. 1974년에 장로교 동성애자 모임을 시작했고, 1986년에 에이즈로 사망했다. 1978년에 동성애자를 위한다는 2개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자기들을 ‘좀 더 가벼운 교회’라고 불렀다. 2001년에 동성애자 안수 여부가 총회

에 상정되어 46개 노회가 찬성했으나 부결됐고, 2008년에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혼 인정 여부가 총회에 상정돼 찬성한 노회는 77개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102개 노회의 찬성으로 동성애자 안수가 통과되고, 2014년에는 혼인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꾼 후, 2015년에 동성혼을 인정하도록 장로교 헌법을 개정했다. 2016년 총회 기도에서 이슬람 단체 사람을 기도자로 내세워 알라에게 축복을 비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미국 장로교가 저렇게 된 데에는 신학이 에큐메니컬 신학으로 무너진 영향이 크다. 2010년 조사에서 미국 장로교 목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이고, 2011년에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가에 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즉, 현대에는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신학교가 가르치고, 그런 믿음으로 배출된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런 성도들이 주로 남아 있게 된 미국 장로교에서 교단 헌법의 개정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국 장로교가 변질되는 동안 장로교단의 교인 수는 1970년

350만 명에서 2022년에는 114만 명으로 추락한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와 ‘맛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지지리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미국 감리교는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을 휩쓸면서 에이즈 환자를 돕자는 취지로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가 공인된다. 연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동성혼 거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결국 정치적, 문화적, 신학적 영향을 받아 감리교가 분열 사태에 들어갔다. 이러한 교회의 변화에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자를 학교에서 내보낸 신학교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예수님은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신다. 누룩이 쉽게 번지기 때문이다. 친동성애라는 누룩이 30~40년만에 수백 년 역사의 교단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누룩을 제한하는 것이 이동환 씨의 출교의 형태로 실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다행이다. [GPNEWS] S.Y.



복음의 능력

당신은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요일 5:1)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는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신의 죄와 불법이 모두 깨끗해졌다고 확신한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 거듭난 사람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며 그분을 포기하고 다른 구원자를 찾겠느냐고 묻거나 영생의 소망을 선행, 공로, 기도, 사역 및 봉사활동에 두겠느냐고 물어보자. 그러면 그는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온 세상을 다 준 다 해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굳게 붙잡겠다고 대답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1)

진리가 생명 되어 나타난 사랑, 교회

어둡고 메마른 광야 같은 과정을 맞이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 순간엔 죽음으로 몰아가는 절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기와 절망의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된다.

한국교회는 큰 축복과 성장으로 달려왔지만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 스스로 영적 진단을 어떻게 해볼 것도 없이 교회는 힘을 잃었다. 외부에서 교회를 걱정해 줄 정도다. 쌓인 내공이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생각이 떠난 우리 삶의

현장은 너무 많은 죄악과 부끄러운 실상들로 가득하다.

역사상 절망의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일으키셨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으로.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로마의 거대한 압제 아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초대교회, 이리 때 가운데 잡아먹힐 양처럼 밧모섬에 유배됐던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살아계신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한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첫 번째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화려한 이론과

방법,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던 수많은 것에서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존재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아주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는 죽은 전통이나 교권 세력에 의한 집단이 아니다. 인간 문명의 산물인 종교는 더욱 아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생명 공동체이다. 진리가 생명이 되어 나타난 사랑, 그것이 바로 교회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일러스트=고은혜

(렘 6:16) 위기 앞에 섰을 때, 멈춰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초점이 정확히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했는지,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

신 든든한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다. 복음을 듣되 복음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세울 때는 멋지고 그럴듯하지만 바

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위기를 만나면 그 기초가 드러나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해 봐야 한다. 어디에 서 있는가?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익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GPM 복음기도신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eBook도 있습니다

김용익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래리 오스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교회가 세상에서 경멸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복음은 생명(Life)이다. 마찬가지로 생명 안에는 삶(Life)도 담겨 있다.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 따로 삶 따로인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세상에서도 온갖 짝퉁이 넘쳐나고 가짜가 판을 치는 이때에, 믿음도 짝퉁이고 가짜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 책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

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니엘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다니엘의 승리한 경험들 즉,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기적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나오는 정반대의 상황들, 조롱과 채찍질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했던 그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며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증인되어 살고 믿음의 걸음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답은 어렵지 않게 책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책에서 저자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소망, 겸손, 지혜'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 소망, 겸손, 지혜는 악한 세상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

보게 한다.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붙들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포로 신분으로 거세당하고 환관이 되어 흉악한 바벨론 위정자들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다니엘. 그러나 그는 신세한탄과 절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상황, 관계 속에서 복음의 증인(히 11:32)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과 악인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사는 겸손과 지혜가 그의 삶 구석구석 녹아져 있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지금 세상이 악해졌다고 생각하던 나에게, 악에 관해서는 바벨론을 따라갈 나사가 없고, 그 무엇도 바벨론만큼 타락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저자의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리고 보니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

모라의 모습들도 지금보다 결코 덜하지는 않았으리라.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반역성과 확장성으로 득세해진, 그러나 장차 망할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노골적으로 경멸당하는 때를 지나고 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에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성경의 명령이 그들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거나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할 때면 슬쩍 외면하는, 다니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청년 부자 권원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정을 품었다가도 그에 따르는 대가를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꿔 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 둔 이때에 과연 나의 믿음은 절대적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가?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떠올린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한 발자국.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한 걸음을 낳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마지막 완주하는 걸음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어줄 것이라 믿는다.

삶에 기쁜 일이든 눈물날 일이든 주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가장 영광스런 그 날을 향한 소망이 필요하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며, 매순간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겸손이 필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주권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소망, 그 겸손, 그 지혜가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복판에서 교회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을까? [GPNEWS]

양동원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2. 21 ~ 3. 12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창숙 권혜령 김선례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혜신 노명희 박경희 박성규 박순결 박신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안애린 오세주 유영권 이삼연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진희 정금자 정요한 정호진 조형광 최근희 최영석 최점옥 홍고집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샘물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오예교회 주나임교회 험시바교회 참종양터라교회 함안순복음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press@gpnews.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막내인 제가 팀 리더를 맡으라고요?

"2시 반에 있는 엔진 리더십 미팅에 와주세요"

영문도 모른 채로 가서 엔진 부서장님과 기관장, 부서 관리자, 훈련관, 심장, 팀 리더들 사이에 앉아 두리번거렸다. 리더십과 미팅을 할 만큼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돌아봤지만 없었고, 내가 왜 그곳에 앉아 있던 것인지 예상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팀 리더로 시은을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다. 팀 리더라니, 한 번도 가능성을 두고 재미로도 상상해본 적 없는 인수인계였다.

첫째로, 나는 엔진 부서의 막내다. 두 번째, 영어가 그리 유창한 편은 아니다. 세 번째, 나 말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많아 보였다. 아주 짧은 순간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뱉은 말은, "Are you sure?(너 확신해?)"였다. 그냥 선배가 되기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왜인지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여기고 아멘

으로 받게 하셨다. 심지어는 내가 기존에 속해 있던 팀의 리더 자리가 아닌 다른 팀 리더 자리를 물려 받게 되었으니, 정말 주님이 '굳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닐까?

팀 리더가 하는 일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 엔진 부서 안에서 나눠진 3개의 팀 중 하나를 맡아 사람들을 케어하고, 일을 하는 데에 있어 본이 되고, 팀원들이 만나 교제하는 시간들을 기획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지체들을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딤후 4:12)

며칠 후,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가 나에게 나눠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성경에서 찾아 보여주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부르심 받은 자리 이곳 로고스호프에서 내가 걸어야 할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번 2월 주어진 팀 리더라는 직임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 앞서 먼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려 하심을 말씀해 주셨다. 나 자신이 세우고 있던 선교의 기준, 선교사로서 좀 더 알맞은 삶의 정의, 로고스호프의 장점을 더 누리고 싶은 욕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맡겨 드린다.

업무 특성상 배가 상륙했을 때 비록 현지인을 만나는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하나 그 선교가 가능하도록 배 가장 밑바닥에서 기쁘게 섬기고,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할 기회는 희귀하나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 허락된 만큼 이 삶에 충성스럽게 임하는 것이다.

어떤 힘든 일을 하는 것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리더가 되어 섬기는 것도, 나 스스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잘 살아보려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할 것



▲ 선박에 붙은 녹을 제거하는 모습. 제공: 김시은 선교사

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3월이 되길 기도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호 6:6)

[GPNEWS]

김시은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